
청렴문수? 타락문수!

김문수 후보의 과거를 보면 청렴이 아닌 타락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.

김 후보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시절 자신의 극우 유튜브를 운영한 사람에게 직위를 하사했습니다.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문수TV PD 출신 최 모 씨는 김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 시절 수행팀장 이력 등이 있을 뿐, 업무와 연관 있는 노동계 이력은 찾기 힘든 사람입니다.

최 씨는 자문위원으로 1억 원가량을 받으면서 정작 자문회의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최 씨의 업무는 김 후보 수행비서 등의 역할에 불과했다고 하는데, 수행도 자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?

김 후보가 최 씨의 결혼식 주례를 설 정도로 특별히 아끼는 것은 자유이나, 친하다는 이유로 자격미달 인물에게 공적 경력을 선심으로 던져주는 것. 우리사회는 그것을 권한남용 혹은 부정이라 부릅니다.

나아가 최 씨의 배우자를 현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했을 정도이니 김 후보의 ‘제 식구 챙기기’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.

김 후보의 옳지 못함은 이뿐이 아닙니다. 김 후보는 경사노위를 범죄 전력자의 재기용 발판으로 전락시켰습니다. 본인의 지지단체 상임대표였던 이 모 씨를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. 이 씨는 MB정부 시절 원전 비리로 3억 원을 수수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.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사람을 대변인으로 앉혔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

소위 전문위원 ‘물갈이’도 있었습니다. 노동권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위원들을 내쫓은 결과는 고등법원의 ‘심사 없이 해고는 위법하다’는 판결로 돌아왔습니다.

정작 김 후보는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했습니다.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주선해야 할 경사노위에서 김 후보가 직접 주재한 대면 회의는 단 한 차례뿐입니다. 재직 시절 성사된 사회적 합의는 단 2건으로, 역대 위원장 중 꼴찌 수준입니다. 이 사이에 김 후보는 1억 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챙겼다고 합니다.

대체 어느 지점에서 청렴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. 극우 측근 챙기기와 비리 전력

자 살려주기는 청렴이라기보다, 부정부패의 기본 사례일 것입니다.

내란과 극우에 가려진 김 후보의 실체는 결코 청렴하지 않습니다. 타락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운 김 후보는 더 이상 청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.

2025년 5월 16일
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·박관천